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1期(2025.11.28) WWW.MINGHUI.ORG

한글판 1025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 【중국법회】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린 동안 사부님께서는 기다려주셨다
- 【중국법회】 ‘대학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
- 【중국법회】 20년을 견지하며 매일 걸어 나가 사람을 구하다
- 【중국법회】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가다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1
---------------------------------	----

■ 중국법회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린 동안 사부님께서는 기다려주셨다	16
‘대학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	30
20년을 견지하며 매일 걸어 나가 사람을 구하다	41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가다	50

■ 수련교류

맹세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56
수련의 엄숙함	60
진상 달력을 만드는 수련생들과 교류	64
법공부 중 법을 얻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69
‘전법륜’을 필사하면서 일어난 변화	73
안으로 찾은 후 반신불수 가상이 몇 분 만에 사라져	78
남녀 관계에 관한 문제	82
손으로 쓴 대련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에 대한 제안	83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1월 22일, 미국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Silver Spring, MD)에서 열렸고 파룬궁수련자가 다시 초청을 받았다. 수련자 두 명이 꽃차 위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다. 요고팀이 경축 분위기를 띄우자 사람들은 음악과 북소리에 맞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몇몇 파룬궁수련자는 영어로 ‘파룬따파’, ‘세상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필요로 한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길가의 관람객들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환영했고, 파룬궁수련자가 건네는 전단을 앞다투어 받았다. 관람하던 시민들은 긍정적 메시지를 전한 파룬궁수련자에게 감사를 표했고, 기념일을 앞둔 모든 사람이 항상 진선인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자의 퍼레이드 대열이 본부석 앞을 지날 때 사회자는 현장의 관중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파룬따파는 전통적인 가부좌 연공과 자아 수련의 공법으로, 진선인을 원칙으로 삼으며, 부드러운 연공 동작과 가부좌가 결합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수련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활력이 넘치고 내적인 평화를 얻고 도덕성이 향상됩니다. 1992년 리홍쯔(李洪志)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공개 전수하셨고,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으며, 파룬따파의 저작은 5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현장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한 사회자는 7News의 두 베테랑 앵커인 브라이언 반 데 그라프(Brian van de Graaff)와 에일린 웰란(Eileen Whelan)이었다. 그들은 퍼레이드에 참가한 파룬궁수

련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아름다운 경축일에 우리에게 평온과 안녕을 가져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확실히 진실, 선량,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더 나아지게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축하 행사는 현지와 인접 지역 다양한 민족의 주민 수천 명을 끌어들였다. ABC 소속 7News와 워싱턴 Fox5 등 텔레비전 방송국은 퍼레이드를 전 구간 생중계했다.

11월 22일, 미시간주 카라마주(Kalamazoo) 중심가에서 ‘제63회 메이플 힐 홀리데이 퍼레이드(Maple Hill Holiday Parade)’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는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성탄 축제다.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퍼레이드 팀은 대열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미시간주 파룬궁수련자들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축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 모자를 썼으며, ‘파룬따파’라는 글자가 새겨진 최신 겨울옷을 입고 현장의 인파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수련자들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경쾌하고 질서 정연한 당나라 북 연주를 선보였다. 현지 언론 ‘뉴스 채널 3(News Channel 3)’은 다음 날 보도에서 파룬궁 퍼레이드 팀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11월 7일, 데이비드 맥코믹(David McCormick)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상원의원 총 8명이 ‘파룬궁 보호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파룬궁 보호법’(S.817 법안)은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3월 3일 발의했으며, 법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여전히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개인이나 공모자를 제재하고 중공에 책임을 묻는다.

11월 20일, 미국 의회 덕슨(Dirksen) 상원 오피스 빌딩에서 ‘중공의 종교 신앙에 대한 전쟁 선포: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 왜 이것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여러 증인이 중공이 강제, 협박 및 초국가적 탄압 수단을 통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 단체를 박해하는 상황을 진술했다.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공동 의장이자 ‘전국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전 대사)은 청문회 증언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중공의 파룬궁 집단학살 범죄를 인정하고,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지지하며,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의 인터넷 봉쇄를 뚫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미국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등 중공의 박해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면담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중공에서 탈퇴하도록 돕는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댄 설리번(Dan Sullivan) 연방 상원의원이 청문회를 주재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가 평화롭게 연공하고 가부좌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공의) 고문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양심과 신앙의 권리는 정부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에 필수적인 보편적 인권이다. 중공은 신앙의 힘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가치관과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며 중공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월 22일, 캐나다 몬트리올은 연중 가장 성대한 축제 행사인 성탄절 대퍼레이드를 맞이했다. 파룬따파 천국악단도 대규모 편성으

로 참가해 퀘벡 시민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명절 축복을 전해 호평을 받았다. 몬트리올 대학생 라나(Lana)는 말했다. “저는 이 팀이 가장 훌륭한 팀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규모가 크고 호흡이 잘 맞았으며, 복장도 매우 아름다웠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동영상으로 모두 녹화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천국악단이 ‘진선인’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나는 더욱 기뻐했다. “이런 이념은 매우 아름다워요. 성탄절 한겨울에 사람들에게 선함과 희망을 전해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었어요.”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주 전역에서 파룬따파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이어지며, 여러 정부 기관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11월 12일, 카리문군 공공질서국장 테자리아 박사(Drs. Tejaria)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룬따파 소개반을 열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4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바탐시 청소년 교양센터(Batam City Juvenile Rehabilitation Center)를 방문해 공법지도를 했다. 약 60명의 소년 수감자와 수십 명 직원이 참가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수련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수련 체험을 공유하고, 일상생활과 사회 속에서 진선인 원칙을 어떻게 실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이야기했다. 이에 앞서 11월 11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바탐섬 여성 교정시설의 초청으로 여성 재소자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했으며 약 100여 명 여성 재소자들이 참석했다. 바탐섬 여성 교정시설 책임자 누르 무스타피다(Nur Mustafidah)는 재소자들과 함께 파룬궁 소개반에 참여한 그녀는 지지의 뜻을 밝히며 소감을 전했다. “이 활동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소자들이 꾸준히 연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평온하고 건강해지며 균형 잡

힌 사람이 되어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1월 하순, 뉴질랜드의 모든 도시는 다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시즌에 접어들었으며 축제 분위기가 넘쳐났다. 뉴질랜드 파룬궁 단체는 20여 개 도시 및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대형 퍼레이드에 참가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11월 22일과 23일 주말 이틀 동안,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 용춤팀, 요고(腰鼓)팀이 각각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오네헝가(Onehunga) 구역, 파파쿠라(Papakura) 구역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파룬따파 단체는 밝은 의상, 질서정연한 대열, 웅장한 악곡, 생동감 있는 공연으로 현장 관중들에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했으며,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뛰놀고 박수 치며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엄지를 높이 치켜들며 칭찬을 표시했다. 크라이스트처치 북부 지역 출신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자원봉사자 마크 스케이프(Mark Scaife)는 “만약 모든 사람이 이 가치에 따라 생활한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장 자오러지(趙樂際)가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오클랜드, 웰링턴 등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항의하며, 중공이 26년간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해 온 만행을 폭로했다. 수련자들은 현장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행인과 언론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뉴질랜드 정부에 호소했다. 그들은 정부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에 관심을 갖고 ‘마그니츠키법’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근거해, 박해에 가담한 중국 관리들에게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를 희망했다. 수도 웰링턴의 전 시의원 앤서니 브런

트(Antony Brunt)는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자의 평화적인 항의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자오러지가 파룬궁 박해에 깊이 관여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브런트는 자오러지가 2017년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즉 중공 정권의 ‘철권 인물’”로 취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박해 정책을 추진했으며, 악명 높은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을 통해 파룬궁 탄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오랫동안 “전국 범위에서 파룬궁 소멸 임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것으로 지목돼 왔다.

한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는 파룬궁수련자의 공개 서한을 받았다. 이 서한은 정부가 자오러지와 회담할 때 중국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26년간 지속된 파룬궁 단체에 대한 탄압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서한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등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박해 사실이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총리실은 답신에서 수련자들이 시간을 내어 피드백, 우려와 생각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의 의견을 기록했으며, 총리 및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Melbourne Convention Centre)에서 올해 두 번째로 ‘몸·마음·영혼’ 건강전시회(MindBodySpirit Festival)가 개최됐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시 부스를 설치해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각자의 수련 이야기를 공유했다. 파룬따파 부스의 밝은 색상, 완만한 연공 시연, 평화로운 에너지장은 매일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게 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대법 부스에서 5가지 공법을 배운 뒤

온라인 무료 공법교육반에 등록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사보나(Maria Savona)는 수련자들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수련자들이 사심 없이 파룬궁을 널리 알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와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에 깊이 감탄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고는 정말 감동적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분명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얻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으로 진선인 이념을 필요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랑스 시장 살롱이 2025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파리 베르사유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 기회를 빌려 파룬궁수련자들은 18일과 20일 전시관 앞에서 방문객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며, 중공의 박해를 함께 저지하자는 서명을 받았다. 전시관 앞은 사람들로 끊이지 않았고 진상을 알게 된 많은 사람이 중공의 박해에 충격을 받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파룬궁 공법에 매료됐으며, 어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공의 강권에 맞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며 잘하고 있다며, 계속 견지하라고 격려했다. 일부 의원, 시장, 시의원 및 각계 인사들은 G7+ 7(주석 참조) 생체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고, 하루빨리 박해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표했다. 에스케네-곡스 로랑(Esquenet-Goxes Laurent)은 오토가론(Haute Garonne) 지역 전 의원으로 파룬궁을 알고 있다. 그는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는 건강한 생활 방식과 건강한 몸으로 유명합니다. 중공정부는 전체주의적 수단으로 각종 구실을 대 그들을 체포한 뒤 장기를 적출하고 살해합니다. 이는 끔찍한 행위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폭로해야 합니다.”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전시센터에서는 연

레 ‘마드리드 건강박람회’가 개최됐다.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와 ‘진선인’의 보편적인 가치를 전하고 공법을 시연했으며, 각종 자료를 배포해 심신 건강과 도덕심 함양, 생명을 이어주는 파룬따파의 비범한 의의와 신기한 효능을 보여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과 찬사를 받았다. 소니아(Sonia)는 말했다. “진실, 선량, 인내’,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늘 찾았고 추구해온 것임을 느꼈어요. 지금 삶이 너무 바빠 긴장돼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밖이 아니라 마음에서 평온을 찾아야 해요. 파룬따파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진선인’이라는 세 가지 가치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참으로 희귀합니다. ”

11월 16일 일요일, 2025년 한국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9명의 수련자들이 생활 속에서 심성을 제고하고 중생을 구한 수련 심득을 교류했다. 발표자들은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수련의 기점에서, 법을 첫 자리에 놓으며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발표했다. 한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대법제자가 중생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천년의 기다림, 만고의 기연(機緣)이 헛되지 않도록 최후의 길을 잘 걷기를 다짐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성 푸순시 파룬궁수련자 장더신(姜德新)이 2024년 10월 26일 밤 허베이성 청더시 경찰에게 납치돼 청더시 구치소에서 9개월간 불법 구금됐다. 2025년 7월 그는 청더시 왕차오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2025년 11월 3일 장더신은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제4감옥 1감구(監區)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장더신은 올해 56세로 대법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됐지만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가운데 두 번 불법 판결을 받아 1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다칭시 랑후루구의 61세 파룬궁수련자 단샤오룽(段曉榮) 교사가 2025년 6월 24일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햇별을 쬔 후 장을 보러 갔다가 사복 경찰에게 납치돼 다칭시 제2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채 기소됐다. 10월 15일 그녀는 다칭 랑후루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최근 불법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6만 위안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샤오룽은 상소할 예정이다. 단샤오룽의 어머니는 딸이 납치 박해당한 것을 알고 건강이 악화돼 9월 말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다.

청두시 파룬궁수련자 중광충(鍾芳瓊·60)은 2024년 7월 7일 청두시 공안국 신두분국 다평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청두시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 및 누명을 썼으며, 2025년 11월 18일 신두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중광충은 이미 항소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후 중광충은 여러 차례 납치, 불법 감금됐으며

한 차례 불법 강제노동, 두 차례 불법 형 선고를 받아 총 11년을 겪었다. 파출소, 구치소, 세뇌반,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허베이 동광현의 파룬궁수련자 5명 청구이쥘(程桂君), 쑹구이편(宋桂芬), 장원핑(張文萍), 먼빙청(門丙城), 위융리(於永利)와 푸청현 파룬궁수련자 리전잉(李珍英)이 2025년 4월 18일 닝진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6명의 파룬궁수련자 모두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리전잉은 4년, 청구이쥘과 위융리는 각 3년, 장원핑은 2년, 먼빙청은 1년 6개월, 쑹구이편은 1년이며 모두 벌금 3000~10000위안을 갈취당했다. 2024년 6월 19일 파룬궁수련자 장원핑, 청구이쥘, 쑹구이편은 이웃 현인 산둥성 닝진현에 장을 보러 가서, 선한 마음으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닝진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일 오후 닝진현 국보대대 경찰이 여러 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성을 넘어 동광현으로 가서 현지 파출소 경찰과 함께 장원핑, 청구이쥘, 쑹구이편의 집에 난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동시에 동광현 공안국 경찰이 동광현의 파룬궁수련자 먼빙청, 위지향의 위융리와 형수이시 푸청현 마터우진의 리전잉 집에 난입해 그들 3명을 각각 납치했다. 6명의 파룬궁수련자는 산둥성 더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파룬궁수련자 위춘옌(於春豔·63)이 2025년 4월 9일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위춘옌은 약 한 달 전 랑후루 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춘옌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랑후루 법원에서 두 번째로 불법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위춘옌은 올해 63세로 독신이며 혼자 거주한다. 2025년 4월 9일, 여성 파룬궁수련자

3명이 위춘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 다칭시 사얼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됐고, 강탈당했다. 위춘옌은 경찰에 의해 다칭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됐다.

2025년 4월 2일 심야, 하얼빈시 공안국 경찰과 무란현 공안국 국보대대가 결탁해, 헤룽장 무란현 파룬궁수련자 메이광친(梅廣芹)을 집에서 납치해 하얼빈시로 데려가 감금하고 박해했다. 10월 29일, 하얼빈시 이란현 법원은 메이광친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불법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쓰촨성 루저우시 장양구의 60세 농촌 여성 류쥔전(劉宗珍)은 수련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해준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장양구 공안분국에 의해 모함을 당하고 루저우시 장양구 검찰원과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2025년 4월 초 청두시 룽취안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감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류쥔전은 루저우시 장양구 란텐진의 모처에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진상 표어를 걸고 붙이다가, 란텐진 지역사회 직원에게 강제로 란텐진 파출소로 끌려갔다. 이후 가택수색을 당했고 ‘처분보류’ 처분을 받았다. 2024년 7월 19일 장양구 검찰원은 그녀를 장양구 법원에 모함했다. 12월 13일, 장양구 법원은 류쥔전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산둥성 타이안시 61세 파룬궁수련자 정홍링(鄭洪玲)은 2025년 1월 6일 다이웨이구 샤장진 리자상장촌 장터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사복 경찰에게 미행당해 샤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타이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6월 5일 불법적으로 3년형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으며, 9월 23일 지난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충칭시 허촨구에 거주하던 64세 파룬궁수련자 리원핑(李文鳳)이 2021년 9월 7일 허촨 공안국 소속 양청리(楊成利), 국보 소속 단평(段鵬) 등에게 납치돼 허촨 구치소에 20일 동안 갇혀 박해당했다. 12월 9일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후 다시는 그녀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고, 친지들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수개월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감옥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폭로에 따르면, 리원핑이 2025년 상반기(대략 2월부터 3월)에 충칭시 여자감옥에서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감옥경찰이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감시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리원핑이 아침에 일어나 침대와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머리를 두 번 두드린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맞은편 쇠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한다. 쓰러진 후 움직이지 않아 나중에 감옥 밖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사망했다고 한다.

랴오닝성 번시시 파룬궁수련자 천옌(陳妍) 여사는 2024년 7월 15일 시후구 공안분국 허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번시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또한 잔혹하게 구타하며 상처를 입혔다. 올해 5월 현지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1월 5일, 그는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강제 이송됐고, 3일 후 비참히 세상을 떠났다. 천옌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입에서 검은색 점액이 흘러나왔다. 천옌의 어머니는 질문했다. “내 딸이 5일 오후에 감옥으로 보내졌을 때 감옥 측은 ‘정상 상태로 입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겨우 3일 만에 사람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침묵했다. 천옌의 부모가 현장 관계자의 이름을 묻자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검사와 전화번호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이름을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의 선량한 농촌 부녀자 자오원슈(趙文秀)는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루현 하이차오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2019년 루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자오원슈는 2025년 3월경 청두 룽취안 여자감옥에서 박해받아 사망했다. 향년 83세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광란적인 박해를 개시했다. 자오원슈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선인 신념을 확고히 했으며,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그녀는 가택수색, 유랑생활, 납치, 불법 구류, 세뇌반 감금 등을 겪었고 세 차례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그 기간에 19가지 이상의 각종 고문을 당했다.

광둥성 산터우시 파룬궁수련자 세춘핑(謝純鋒)은 1996년 중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산터우시 중급법원 형사2정 서기로 근무했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돼 독약 주사와 독극물 주입 박해를 당했다. 또한 여러 차례 구치소에 감금돼 구타와 동형(凍刑, 얼리는 고문) 박해를 당했다. 그는 두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합계 3년)을 당해 전기충격 등 각종 혹형 박해를 받았다. 그는 8년간 어쩔 수 없이 타향을 떠돌아야 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가택방문 협박 등 박해를 당하다가 2025년 9월 18일 향년 52세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린 동안 사부님께서는 기다려주셨다

글/ 중국 동북대법제자 환성(喚醒)

[명혜망] 저는 동북 지방의 수련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법을 얻었지만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속세의 명리(명예와 이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사부님께서는 이 못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수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무량한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 글로 대법의 소중함과 사부님의 위대함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1. 어린 나이에 법을 얻다

1996년, 저는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등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나’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나’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하늘을 한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에서 겨울로, 다시 겨울에서 여름이 되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생각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여름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는데 잠결에 이 한 마디만 들렸습니다. “가자, 연공하러 가야지!” 저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연공이요? 무슨 연공?” 어머니께서는 “파룬궁이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연공장에 가보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곳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수련생들은 소박하고 친절하면서도 소탈했습니다. 보도원은 밝게 웃으시며 저의

연공 동작을 계속 고쳐주셨는데, 너무나 선하고 인내심이 있었습니
다.

저녁에는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서 말씀하신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정말 심오하고, 정말 순정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
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
문의 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저의 단짝 친구에게 전
화를 걸어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연공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공(靜功)을 수
련하기 시작하자마자 가부좌라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제 다리는
유연하지 못해서 양쪽 다리를 대충 걸쳐놓아도 고통이 심했고, 반
가부좌를 해도 10분 만에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생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가부좌
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아파?” 저는 “네, 아파요!”라고 대답했습니
다.

저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고생을 해본 적이 없고, 의지가 강
하지 못해 가부좌가 두려웠습니다. 반면, 어머니께서는 처음 연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결가부좌를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다리가 검푸른색으로 변해도 절대 다리를 풀지 않고 견디
셨습니다.

고통이 두렵고 학교 공부도 바빴기에 저는 연공장에 가는 횟수가
적었고, 대법에 대해 항상 감성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저는 명예와 이익, 남녀의 정을 강하게 동경하며 아
름다운 앞날을 추구했기에 진정으로 수련하지 못했습니다.

2. 집을 떠나기 전의 당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동안 1999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7월, 악당 우두머리 장쩌민은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7.20때부터 사악한 매체들은 끊임없이 대법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했으며, 대법제자의 친척, 친구, 직장, 주민센터 직원들은 수련생의 가정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우리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마음 속 깊이 사부님을 존경하고 대법을 우러러봤으며, 한 점의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법륜’을 읽었기에, 사부님과 대법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절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또 사부님의 ‘홍음’을 읽었기에, 불법(佛法) 진리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아깝지 않으며, 절대 사부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곳에서 삼엄한 감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반 전화로는 대법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대법이 박해받는 진상을 이야기할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가슴이 쿵쥔거렸습니다. 이야기할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홍음-무존). ‘설령 내가 박해로 죽는다고 해도 오늘 진상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둥근 무엇인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친구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면서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대법이 너무 억울하고 사부님께서 너무 억

울하시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2000년, 저는 집을 떠나 타지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께서는 저를 걱정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악한 환경에서 어머니께서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어머니께 당부했습니다. “엄마, 절대 대법을 배신하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걱정되어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법공부와 연공을 독촉할 사람이 없어. 혼자서 법공부를 잘해야 해. 절대 대법에서 멀어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3. 헛되이 보낸 청춘 시절

대학 입학 초기에 저는 그래도 법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기숙사에는 사람이 많아 연공할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저를 보살펴주셨습니다. 대법을 생각하거나 설법 녹음을 들으면 종아리가 아팠는데, 그 통증은 가부좌할 때와 똑같았으며, 녹음을 듣지 않으면 통증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전화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 없어서 전화 카드를 사서 매주 길거리 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난 후 처음엔 네가 법에서 멀어질까 봐 정말 걱정했어. 그런데 오늘 ‘전법륜’을 펼치다가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보았단다. 나는 그 큰 나무는 나고, 작은 나무는 너라고 생각했어. 너 법공부를 잘할 거지?” 또 한 번은 어머니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네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캠퍼스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을 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다시 ‘전법륜’을 소중

히 펼쳐들고 읽었습니다.

한번은 전화 부스에서 수련생이 직접 쓴 진상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번은 길가의 공터에서 수련생이 스프레이로 쓴 진상 표어를 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수련생들을 만나 함께 법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고, 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속세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명예와 이익, 남녀의 감정을 쫓아갔습니다.

‘천안문 분신 사건’이 발생한 후, 저는 가끔 기숙사에서 파룬궁 박해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 친구들에게 ‘전법륜’은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므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분신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그때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야기하는 내내 계속 몸이 떨렸고, 체온이 내려가서 이까지 딱딱 쪼았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한번은 한 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파룬궁은 ○○종교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 떨렸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략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돌발 사건인데, 왜 미국 ‘9.11 사건’에서는 화면이 흔들리고 흐릿하며, 사람들 목소리가 엉켜서 뒤죽박죽인데, ‘천안문 분신 사건’의 화면은 그렇게 깨끗하고 선명할까요? 게다가 원거리샷, 근거리샷, 클로즈업까지 카메라 샷이 다양해서 마치 전문가가 촬영한 것처럼 보일까요?” 교수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학생들도 긴장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마치 공기가 굳어버리고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함부로 말하지 않겠어요.”

대학 시절 저는 대법을 위해 말을 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쏟고, 아르바이트에 쏟았으며, 모든 면에서 속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방학에 집에 돌아갔을 때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법공부와 연공을 했으며, 어머니와 함께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그때는 대법제자로 돌아갔다가 어머니의 시야를 벗어나면 다시 속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수련에 확고하지 못해 한 손으로는 인간의 삶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을 붙잡은 채, 좋은 시절을 모두 헛되이 보냈습니다.

4. 어머니의 부름

2004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더 바빠졌고, 어머니를 찾아가 법공부할 기회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걱정되어 늘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늘 네가 걱정되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곤 해. 그리고 걱정 대신 네가 법을 얻은 것을 축복해주고 있어. 요즘 법공부를 했니? 법공부를 꼭 해야 해! 마음속에 법이 있어야 해!” 이처럼 어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저에게 법공부를 권유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발정념을 했는데, 네 공간장에 먼지가 정말 두텁게 쌓여 있더구나. 내가 발정념을 한 후에는 아주 깨끗해졌어.” 어떤 때는 또 매우 걱정하시며 몇 번이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법을 얻었을 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과 북을 치며 붉은 용과 봉황이 새겨진 가마를 메고 너를 데리러 왔단다. 가마가 정말 아름다웠

고 사람들은 축제를 치르는 것처럼 기뻐했단다. 그건 네 세계의 중생이 네가 법을 얻은 것을 알고 모두 경축하고, 네가 돌아갈 때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지금 법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머니께서는 또 집에서 법공부를 시작하실 때, 가끔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천 리 밖에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수련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독촉하면 며칠 법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다시 돈을 벌고, 승진하고, 연애하고, 쇼핑과 모임을 하느라 바빴으며, 마음에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하여 휴가를 내고 집에 오라고 하셨고, 사부님께서는 더욱 조금하시어 꿈에서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짐을 가득 들고 기차나 지하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매 번 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짐을 다 챙기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려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야만 대법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연차, 5.1 노동절, 10.1 국경절에 출장이 없으면 바로 표를 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명절 때 기차표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특석이나 암표, 입석표를 사야 했지만, 저는 매번 쉽게 침대차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가장 최근의 ‘명혜주간’ 등 대법 간행물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수련생들이 온갖 고문을 겪으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또 진상 자료와 스티커를 저에게 주시며 배포하게 하셨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러 갈 때마다 저는 고향 수련생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봇대에 다양한 내용의 진상 표어가 붙어 있었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표어들은 바람과 햇볕에 색이 바라고 얼룩졌지만, 글자는 여전히 잘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진상 소책자가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고향 수련생들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게 되니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됐습니다.

나중에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보고 나니 중공의 최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두 실명으로 탈퇴했는데, 저도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실명으로 삼퇴했습니다. 이 일을 안 경찰은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경찰들은 당시 여러 대의 경찰차를 출동시켜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으며, 부모님은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수시로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2007년, 경찰은 또 저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들어설 때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담하게 경찰에게 ‘삼퇴’의 원인과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도움 덕분에 이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되었고, 저는 안전하게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5. 사부님의 자비로운 일깨움

그 몇 년 동안 저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법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과 욕망에 매몰됐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계속 저를 보살펴주셨고, 제

가 부당한 재물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선을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응보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볼 때 차라리 제 돈을 쓰더라도 회사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다.

사부님의 보호 아래, 저는 업무를 잘 해 나갔고 상사는 저를 신뢰했으며,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괴롭혔던 위장 통증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몇 번 염하자 완전히 뿌리가 뽑혀, 그 후 10여 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차가 바로 제 앞에서 멈춰 서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연애하다가 실연한 후 오랫동안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날 제가 사부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흐르더니 고통스러운 느낌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섰을 때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의 수련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공부는 한 달에 한 번, 연공은 두 달에 한번만 했습니다. 저는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조차 없었고, 완전히 속인이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저를 위해 끊임없이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수차례 꿈속에서 과거 여러 생의 단편들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와 제자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가는 모습, 천국세계의 장엄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집으로 가는 열차는 늘 떠나기 직전이었고, 저는

매번 급하게 쫓아갔지만, 손에 든 크고 작은 짐들 때문에 달려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 문 앞에 다다르는 순간 잠에서 깬습니다.

꿈속에서 사부님께서는 또 설법을 하고 계셨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자리에 앉아서 법을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매번 꿈에서 깨어난 후 제 마음은 망치로 세계 얻어맞은 것 같았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꿈속에서 엄하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연화좌에 앉아 공중에 떠 있는 사부님의 법신께서는 저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쑤이 없으시다가 어딘가로 날아가셨습니다. 책망이나 꾸짖음도 없었고, 표정도 자비롭고 온화하셨지만,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장엄함과 경외감을 느끼면서 사부님을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아무리 못나게 행동해도 사부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깨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세속을 쫓던 저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돈을 탐할 때면 자책했고, 사치스러운 향락을 누릴 때면 불안함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전법륜’을 집어들기 시작했고, 가끔 현수막을 만들거나 진상 표어를 썼으며, 가끔 출장 갈 때도 진상 편지를 휴대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반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후 얼마나 많은 수련생이 오직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려고 집을 떠나고 생명까지 바쳤는가! 나 역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지만 목적은 영화부귀를 위해서였다. 나는 더 이상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심성의 격차는 얼마나 큰가!’

6. 진정한 수련의 대열에 서다

2011년부터 저는 진정으로 수련하려고 법공부와 연공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법공부를 하는 곳과 수련생들이 있는 환경을 찾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2013년 저는 결혼했고, 남편은 직장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해외나 대도시의 대기업 취직해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사부님, 어디든 좋으니, 단체 법공부를 할 수 있고, 대법을 실증할 기회가 많은 곳으로 남편이 일자리를 찾게 해 주세요!”

그해 6월, 저는 임신하자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친정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걱정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잘 생각해 봤니? 대부분 너처럼 하지 않을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출산 직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9만 위안(약 18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사실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토록 좋은 수련 환경을 떠나 명리를 쫓았지만, 이제는 직장 and 명리를 내려놓고 좋은 수련 환경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떠날 때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제 마음은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에 저는 대합실에서 바닥에 앉아 급하게 ‘전법륜’을 꺼내 들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가는 역무원, 승객, 보안 요원, 경찰들이 제 곁을 지나가며 저를 호기심으로 쳐다

봤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읽었고, 완전히 법속에 몰입되어 마치 세속의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했으며, 자료와 진상 스티커를 만들고,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면서 충실하고 의미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또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법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그동안 굽은 길을 걸었으니,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두려웠습니다. 속세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처음 법을 얻었을 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 또 저에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사부는 오염된 금도 순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사부님의 격려는 저에게 계속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고, 저는 감사함 속에서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아꼈했다, 수련 기회를 놓칠 뻔했으니! 다행히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서 구해주셨구나.’ 그 후 사부님께서서는 제가 이미 진정한 수련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기뻐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깨우쳐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사부님께 감사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격하며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님! 이 제자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어! 그때 네가 집을 떠날 때, 내가 너를 그 작은

나무라고 했잖니? 그 작은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걸 보고, 난 네가 반드시 다시 수련할 거라고 믿었어!”

맺음말

지난날을 돌아보며 저는 후회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아마 ‘후회’라는 말로는 제 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35살이 된 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힘들게 가정 관을 넘으면서 마침내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고 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에게 돌아가서 “제발 깨어나라! 이렇게 좋은 대법을 수련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 좋겠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저를 일깨워줄 기회가 없으니 오직 이 말로 오늘의 저를 채찍질할 뿐입니다.

법을 얻은 해에 저는 19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 물정을 몰랐기에 그동안 많은 유감과 후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저는 46살이고, 열두 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마치 우둔하여 걸음마를 늦게 시작한 아이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 한결 같이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린 시절의 방황, 청춘 시절의 명리에 대한 동경, 혼인의 시련, 강렬한 정욕, 진상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수련 방해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씩 되돌아오고 조금씩 성숙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수련 환경도 갈수록 좋아졌고, 사부님의 보호 아래 다시 법연(法緣)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도움으로 저는 나중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안정된 직장,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 다정한 남편, 착한 아이를 가졌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으로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부님께 세 가지 소원을 더 빌고 싶습니다. 첫째,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중생구도에 사용하여 저의 신성한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에게 난을 조성하여 저의 수련을 돕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욱 선하게 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법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린 제자를 잘 이끌고, 제가 모범을 보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사부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에 임하여, 저의 지난 세월의 교훈, 수많은 유감과 죄책감, 길을 잃었다가 되돌아온 기쁨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 특히 그 시절의 어린이 제자와 그들의 자녀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수련생들에게 교훈이 되고, 길을 잃은 생명들이 수련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허스(舍十).

사부님 말씀을 들으세요

젊은 수련생들이여

만약 당신도 나처럼 대법 속에서 성장했다면

만약 당신도 한때 성스러운 연꽃에 비유되었다면

만약 당신도 부모님의 간절한 부름을 들었다면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면

부디 나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나간 모든 일에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테니까요

젊은 그대들이여

혹시 속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혹시 환상 속에 빠져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나요

혹시 타향에서 그림의 떡을 탐하며
명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대법으로 돌아오세요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찰나에 지나가는 청춘 시절에
누구든 답해주지 않은 의문이 있을 때
‘전법륜’을 펴서 불법(佛法) 이치를 알게 된다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더욱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대법으로 돌아오세요
사부님께서 정법이 끝나는 시간을 거듭 미루셨고
매일 거대한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시간은 이미 사부님의 머리를 하얗게 물들였는데
이 노고와 염려를 중생은 알고 있을까요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대학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어느덧 제22회 중국법회가 다가왔습니다. 수련 30년의 비바람 치던 수련 길을 되돌아보면, 저의 매 걸음에는 사부님의 심혈이 스며들어 있고 대법의 인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저의 수련 체득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폭풍우 속에서 ‘작은 꽃’이 더 화려하게 피어나다

2011년, 한 부부 수련생이 박해받아 자료점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교훈은 뼈아팠고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수련생이 그곳에서 자료를 받아 갖기에 그들이 일을 점점 크게 벌이게 만들었고, 그들은 법공부할 시간이 없어 결국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그 남자 수련생이 저에게 자료점을 만들라고 격려했었지만, 저는 가정의 관을 넘지 못했고 두려움이 커서 감히 그 발을 내딛지 못했으며, 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입력하는 것만 배웠을 뿐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일찍이 자료점이 곳곳에 꽃 피워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대법제자로서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더는 기다리거나 의존하거나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집 부근에 자료점이 있긴 했지만 모두 소형 복합기였고 만드는 양도 그들 자신이 쓰기에만 족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바빴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만들면 수련생들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련생에게 부탁해 소형 복합기 한 대를 사서 인터넷 접속, 다운로드, 인쇄를 배웠습니다. 먼저 권선(勸善, 선행을 권하는) 편지를 인쇄했고 점차 자료를 인쇄해 제가 직접 배포했으며, 나중에는 법공부 팀 수련생들에게 만들어주었습니다.

2015년 4월, ‘장쩌민 고소’ 물결이 일자 수련생들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생과 함께 법공부할 때 저는 수련생들에게 모두 참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글씨를 못 쓰는 분은 말씀하시게 하고 제가 대신 써드린 뒤 함께 우체국에 가서 부쳤습니다. 5월에 대부분 수련생의 고소장이 발송됐습니다.

6월 초, 우체국에서 우편 발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일부 수련생이

아직 보내지 못해서 저는 또 수련생을 도와 타이핑한 후 인터넷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후 장쩌민 고발이 시작되자 수련생이 저에게 섀도 시스템(Shadow System)을 구축해줬고, 저는 매일 명단을 타이핑해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로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사양이 낮아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수만 명의 명단이 기적처럼 발송됐습니다.

작은 컴퓨터가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원래 타자가 매우 느렸던 저도 숙달되어 비교적 빨라졌습니다. 저의 정념도 갈수록 강해져 중공 악당의 소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생기자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외손자에게 “문 살살 두드려, 그럼 할머니는 가족이 온 줄 알아”라고 알려주며 소란 피우는 경찰과 구분하게 했습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 새벽, 중공 악당 공안이 비밀리에 통일 행동을 지시해 우리 지역 20여 명의 대법제자를 불법 납치했고, 일부 자료점이 파괴됐으며 협조인이 체포됐고, 한 수련생은 당일 박해받아 사망하고서야 그들은 납치를 멈췄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말하기를 저와 다른 몇몇 수련생도 명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피신했습니다. 파출소 경찰도 우리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사했기에 이웃이 이미 몇 번 문을 두드렸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기간 저는 집에서 쉼 없이 정념을 발했는데 꼬박 하루 밤낮을 발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이 안정되어 장터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계속 진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장터에서 돌아와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남편이 전화로 “밖에서 좀 있다가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가 후 남편은 매우 긴장하며 파

출소 경찰이 새집 문을 두드리러 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자꾸 사람을 잡아가니 살 수가 없어서 그 사람(저를 지칭)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경찰이 “아주머니 아직 연공해요?”라고 묻자 남편은 “연공하니 몸이 좋아서 집안일 다 그녀가 해요. 연공하게 놔둬요,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주머니 돌아오면 파출소 와서 서명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는 가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대규모 납치가 있기 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텅 빈 들판의 길을 따라 앞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동물 하나와 작은 동물 세 마리가 뒤에서 달려오더니 작은 동물 세 마리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동물은 개처럼 생겼는데 키가 1미터쯤 됐습니다. 저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귀엽구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해라. 이것은 천법(天法)이니 대법제자를 박해하면 죄가 된단다. 알아들었니?” 녀석들은 모두 순순히 한쪽에 섰습니다. 그 큰 동물도 앞에 왔는데 머리 높이가 3미터가 넘었고, 40대 남자가 고삐를 잡고 있었는데 그 동물은 고분고분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손을 흔들며 “빨리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빨리 뛰어가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이번 대규모 납치에서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협조인이 납치되어 자료 공급이 끊겼고 달력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는데, 수련생이 좀 보내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지 수련생이 우리에게 직접 달력을 만들라며 제게 프린터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기대를 떠올리며 직접 달력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계를 집으로 가져오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목숨은 필요 없다지만 난 내 목숨이 필요해! 집에 이미 두 대나 있는데 어디다 둔다는 거야? 파출소 다녀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습니다, 기계 세 대를 어디에 둔단 말인가요? 작년에 제가 탁상달력 5천 부를 만들었는데, 납치된 수련생이 바로 저와 협력하던 수련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생구도를 멈출 수는 없으며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시는 건 저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밖으로 안 나가고 지하실에서만 인쇄할게요. 사부님의 보호가 있어서 별일 없을 거예요.” 그는 심적 부담이 컸지만 묵묵히 저를 위해 종이를 날라다 주었고, 차를 운전해 다른 자료점을 위해 종이를 구매하고 자료를 배달해주었습니다. 이듬해 저는 기계를 한 대 더 늘렸고 수련생도 달력 일부를 보내와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기계 수리할 수련생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는 난감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의 도움으로 기계 수리하는 수련생과 연락이 닿았고 한 수련생이 픽업을 맡았는데, 매번 남편이 운전해 지정 장소에 데려다주고 고장 난 기계를 그곳에 두고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기계 부하가 너무 커서 때로는 며칠만 쓰면 고장 나서 아주 번거로웠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의 어려움을 보시고 기술이 비교적 좋은 수련생과 연결해주셔서, 그렇게 빈번하게 교체하는 일을 끝내고 기계를 잘 손봐주셨습니다. 딸과 남편이 상의해 제게 지하실 하나를 더 사주었고, 아주 하얗게 꾸미고 바닥 타일도 깔아서 저만 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2. 사부님께서 ‘대학 졸업장’을 주시다

협조인이 박해받아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컴퓨터 몇 대는 사양이 너무 낮아 인터넷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컴퓨터 가게에서 한 대를 골랐습니다. 사 오긴 했지만 또 난관에 봉착했는데, 시스템을 설치할 사람이 없는 데다 명혜망에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구형 시스템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일반인 시스템을 설치해 한동안 썼는데, 일반인의 저속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메일함에 파일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명혜망에서 툴박스(Toolbox)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봤지만 이해가 안 돼서 또 내려놓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예전에 일깨워주셨던 꿈을 또 한 번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 쉬운 문제는 다 풀었지만 고등수학 문제는 풀기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의 일깨움이었습니다. 대법제자는 어려움을 알고 물러서면 안 되며, 시스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제가 원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이었습니다. 제가 사부님의 고심을 깨닫지 못하자 사부님께서서는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면 졸업할 수 없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만드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수련 원만에 반드시 넘어야 할 관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해 일일이 검증했고 20여일 후 툴박스를 ‘완성’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시도했지만 이미지 파일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가게(단골)로 가져갔습니다. 컴퓨터 가게 청년이 최신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줬는데 컴퓨터가 온통 영문이라 제가 알아볼 수 없어서 청년에게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 시스템을 설치했고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수련생에게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컴퓨터 가게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도 이거 연구하기 싫어하는데 할머니 혼자 툭박스를 만드시다니 대단하세요!” 청년은 가게를 봐주는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이도 더 많으세요!”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시스템 설치를 배워야겠어.” 얼마 후 그 노인도 시스템 설치를 배웠습니다. 평소 문제가 생기면 그 청년에게 물어봤는데, 청년은 매우 친절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컴퓨터의 사소한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고 하드디스크 교체법도 알려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프린터 문제도 교류하며 서로 배웠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제가 무엇을 하는지 말한 적이 없지만 대화할 때 제3자의 신분으로 그와 그의 장인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번은 제가 진상 호리병을 하나 가져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총각 줄게, 평안을 지켜줄 거야.” 청년이 말했습니다. “전 진작부터 아주머니가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 직장에 파룬궁수련생인 아주머니가 계셔서 그 청년에게 ‘삼퇴’를 해줬던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몇 대를 썼는데 모두 중고거나 사양이 아주 낮은 것이었지만, 그 엄혹한 날들 속에서 저와 협력해 많은 일을 했고 모두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번에 바꾼 이 컴퓨터는 사악의 봉쇄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명혜망에 순조롭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점이라는 이 작은 꽃이 우리집에 피어, 사부님의 보호하에 저는 작은 꽃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 줄도 모르고 아무 기술도 모르던 제가 인터넷 다운로드를 할 줄 알고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능력자’로 단련되어, 박해를 폭로하고 악인을 노출하며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중에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3. 법 속에서 바로잡으니 병업 가상이 사라지다

사부님께서서는 매번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법공부를 많이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년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는 반드시 ‘전법륜(轉法輪)’ 한 강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설법과 경문을 공부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고, 외출하는 길에는 ‘논어(論語)’를 외우고 정념을 발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법의 기초가 있었기에 사악은 제 신체에 대한 박해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장쩌민 고소가 시작되자 사악이 박해하여 저에게 구안와사 상태가 나타났는데 두통, 사시, 입이 돌아가고 오른쪽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저는 수련에 빈틈이 생겼음을 알았지만 이것이 사악이 박해할 구실은 아니며 저는 사부님께서서 관할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하고 안으로 찾아 제가 수련할 줄 모른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법으로 남을 대조할 때는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하면서 정작 자신을 찾을 때는 수박 겉핥기식이었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수련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사돈과 말다툼할 때 기어이 이기려 들었습니다. 사악은 이를 틈타 제가 장쩌민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직 법 속에서 바로잡겠다는 일념뿐이었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생이 제가 고소장 쓰는 것을 도와주길 급히 기다리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정념을 발했고 가능한 한 시시각각 정념을 유지했으며, 밤에 설법 두 강을 공부하고 제 고소장을 빨리 발송한 다음 수련생들을 도와 수정하고 인쇄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자주 밤새워 타이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타이핑하는데 오른쪽 눈에서 액체가 계속 흘러내려 보니 오른쪽 발아래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아이고! 눈물인 줄 알았더니 다 피였구나! 좋은 일이다! 나쁜 것들을 다 청소해냈으니 사부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합장했습니다! 이튿날 눈의 부기가 빠지고 사물이 훨씬 잘 보였습니다. 제2장 공법을 연마할 때 입꼬리가 위로 당겨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타이핑하고 컴퓨터를 보며 거의 쉬지 못했지만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구안와사에 걸린 남자 이웃은 2만 위안(약 400만원)을 쓰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썼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보고 그때부터 대법 진상을 믿게 되어 자주 말합니다. “파룬궁은 정말 좋아요. 나는 2만 위안이나 쓰고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형수님은 한 푼도 안 쓰고 후유증도 없잖아요.” 경찰이 인권 변호사를 납치할 때 이 이웃은 감히 대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위해 소송하는 게 무슨 잘못이요?! 파룬궁이 무슨 잘못이 있소?!” 그는 진상을 알고 혜택을 입어, 그전에 암에 걸린 적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발생 전해 겨울, 우리는 탁상달력 수천 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인쇄를 맡고 수련생이 고리를 끼웠습니다. 수련생이 고령이라 운반하는 일은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동 제본기는 분해할

수 없는 큰 쇠덩어리라 저 혼자 밖에서 조금씩 옮겼는데, 너무 무거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는데 과로로 다친 것이라 여겨서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듬해 직장 정기 건강검진 결과 위축성 위염, 폐 결절, 고혈압, 고지혈증 등 온몸이 병이었습니다. 이어서 병업(病業) 가상도 찾아와 먹는 족족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며, 숨이 차고 가래가 많고 호흡이 곤란해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바르게 걷는 대법제자는 구세력이 감히 박해하지 못한다.’ 저는 법공부를 하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악에게 박해의 구실을 준 것이었습니다. 일하다 과로로 다쳤다고 잘못 생각하여 구세력에게 손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며 인정할 수 없으니 당당하게 대법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진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걱정하지 마, 난 사부님께서 관할하시니 괜찮아.”

남편과 딸은 제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병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곧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자료를 만들지 않을 때는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자주 인터넷에 접속해 명혜망 문장을 읽고 에포크타임스에 접속해 수련생을 도와 ‘삼퇴’ 명단을 올려주니 아주 충실하고 기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걸음걸이가 매우 가벼워졌으며 자전거를 타면 마치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4. 가족들이 대법이 좋음을 인정하고 복을 받다

제 가족은 모두 대법이 좋음을 인정합니다. 남편은 ‘전법륜’을 읽

었는데 안타깝게도 수련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복을 받았습니다. 전염병 기간 그는 사악이 사람을 망치는 계락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백신을 맞았다가 2차 뇌경색이 와서 말을 못 하게 됐고 두 번이나 입원했으며, 허벅지 안쪽에 큰 종기가 나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딸은 그에게 ‘파룬따파하오’를 염하라고 일깨워줬습니다. 나중에 그의 언어 기능이 서서히 회복됐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날 해쳐서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는데 염라대왕이 날 안 받아줬어.” 지금 그는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이며 제가 바쁠 때는 바닥도 닦고 밥도 합니다.

안사돈도 백신 접종 후 암에 걸려 한 달 새 두 번이나 수술했는데 병원에서도 수술대에서 못 내려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전 사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사부님께서 애들(제 딸, 사위와 두 외손자) 좀 잘 챙겨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 괜찮아요. 집안일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파룬따파하오’를 염하세요. 진심으로 염하면 사부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그녀는 즉시 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돼 사돈은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사돈에게 “그냥 법공부하고 연공하세요. 빨리 좋아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돈은 기뻐하며 ‘전법륜’을 모셔갔고 노부부가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었습니다. 제가 오디오 플레이어를 사드렸더니 매일 잠이 안 오면 설법을 듣고 진상 CD와 책자를 보셨습니다.

사돈의 병세가 호전됐지만 수련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 방사선 치료 후 다리 신경통이 멈추지 않고 암세포가 악화해 또 입원했습니다. 병원이 우리집과 가까워 저는 별식을 만들어 하루걸러 한 번씩 문병 갔습니다. 책을 보셨기에 제가 깨달은 법리를 말해주고 진상 이야기, 전통문화를 이야기해주니 부부가 잘 받아들였

습니다. 사돈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알게 됐고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과 억울함을 내려놓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부인은 친자매보다 더 좋아요. 정말 헤어지기 아쉬워요.” 제 딸이 줄곧 곁에서 시종들었는데 마지막 순간 딸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법이 좋다고 염하세요.” 그녀의 원신(元神)이 가슴에서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돈은 아주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친척과 이웃들도 모두 제 딸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위는 우리에게 무척 감사해하며 설에 우리 부부에게 각 5천 위안씩 용돈을 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비교적 작는데 매년 달력이 완성되면 저는 큰 가방에 담아 배포합니다. 관리실 직원부터 우리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받았고,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게 됐으며 그들은 우리 가족을 매우 부러워하고 존중합니다.

이상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20년을 견지하며 매일 걸어 나가 사람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우리 지역 수련생 교류 법회 투고를 위해, 저는 몇 차례 한 수련생을 찾아가 지난 20년간의 심득 체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신 말했습니다. “수련생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잘한 게 없어요. 매일 그저 입을 좀 열고, 다리품을

좀 팔았을 뿐인데, 평범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할머니의 이 말이 입에 발린 겸손이 아님을 압니다. 할머니는 소박하고 말수가 적으며 묵묵히 일하시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올해 83세지만 60세 전후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눈매에 선한 모습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으며, 안색은 희고 붉은 기가 돕니다. 그녀는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명절이나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삼륜차를 타거나 걸어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했는데, 밭머리나 거리와 골목 어디서든 그녀가 진상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10명에서 30명 정도 권하며 꼬박 20년을 견지했습니다. 그녀 말대로라면 이렇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부터,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은 이미 제 생명 중에서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큰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구술하고 수련생이 정리한 수련 체험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1996년 1월, 저는 이웃의 소개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왔습니다.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는 제 심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련한 지 겨우 5개월 남짓하여, 과거 오랫동안 낫지 않던 기관지염, 두통, 요통, 다리 통증 등 질병이 모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파룬불법(法輪佛法) 속에 목욕하며, 저는 온종일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심이 없고 나를 위하지 않으며(無私無我), 남을 위하는 마음이 그로부터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으로 제가 혜택을 입었으니, 더 많

은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운이 돌변해 1999년 7월 장쩌민 강패 집단이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했고,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미친 듯이 납치하고, 세뇌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학식이 높지 않은 노인임에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11월, 저는 세뇌반에 감금됐습니다. 경찰이 문을 지키고,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강제로 세뇌했고, 가족이 동반해야 했으며, 식비와 숙박비는 자비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갇힌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파룬따파를 확고히 수련하려는 결심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진상을 모른 채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매우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한다

사부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는 보답할 길이 없어 오직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가 좋음을 알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게 할 뿐입니다. 그로부터 저는 진상을 알리러 거리와 골목, 밭머리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아파트 입구에서 외지인 두 명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고쳐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아 땀을 뻘뻘 흘리며 조급해하다가 멀리서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리점이 어디 있나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 또 왔으니 마침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600m

떨어진 수리점으로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천안문 분신’은 가짜이고 장쩌민 깡패 집단이 연출해 사람을 속인 것으로, 목적은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적대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또 중공(중국공산당)은 머리끝까지 부패하여 하늘이 그것을 멸망시키려 하고 신(神)께서 그것을 청산하려 하시니, 당신은 그것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당·단·대에서 탈퇴해야 하며, 삼퇴하면 평안을 보장받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생명 보험을 드는 셈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나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쁘게 당·단·대에서 탈퇴했습니다. 저는 또 그들에게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그들은 반신반의하다가 한번 시동을 거니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해 마지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아도 됐네요! 당신네 파룬궁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진상을 알릴 때 진상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안국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밖에서 다른 수련생과 진상을 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더니 경찰 두 명이 내려서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랑 파출소로 가자.” 다짜고짜 우리 둘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참 가엽구나, 중생이 대법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부님,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십시오.’

저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들인데 우리 두 노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향하라고 가르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우리를 잡는단 말인가요?”

두 경찰이 웃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누가 전화로 신고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일 보세요. 우리도 바쁩니다.”

경찰차가 떠났고 우리 둘은 앞으로 가며 계속 진상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제가 의아해하는데 젊은 경찰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말했습니다. “열쇠를 차에 놓고 내리셨더군요. 점심에 댁에 가시면 문을 어떻게 여시려고요?”

알고 보니 경찰이 우리에게 열쇠를 전해주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진상을 알게 되어 대법제자를 위해 생각해주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차례 감동이 일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진상을 알리는 것은 1분 1초를 다뤄야 한다

남편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제 아들과 딸은 모두 괜찮은 직업이 있으며 또 아주 효성스러워 집안이 넉넉합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 엄마를 자기 집에 모셔 봉양하려 합니다. 저는 그 어느 집에도 가지 않고 혼자 사는데,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상을 알리기에 편리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또래의 어떤 노인(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하며 말합니다. “먹을 것 있고, 살 곳 있고, 시중들 사람 있어 누릴 복이 있는데 누릴 줄 모르고, 굳이 따로 살아야 해?” 저는 그저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연못가를 걷는데 연못 속의 물고기가 마치 날개가 돋친 듯 다투어 제 손으로 날아들어, 제 손으로 다 받아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깨우쳐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중생들이 모두 구원을 바라고 있으니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아이들이 다 와서 케이크도 사고 식당에서 생일잔치도 벌여, 자손이 가득하니 참으로 떠들썩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헛되이 낭비됩니다. 저는 수련인이니 시간을 사람 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올해 저는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진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께 가지해주셔서, 올해 생일은 자녀들이 아무도 생각나지 않게 모두 잊어버려,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생일날 아침 일찍 저는 나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이날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해주시어 진상을 듣는 사람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어서 탈퇴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위안(袁)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하기에, 제가 그에게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물었습니다. “이 이름 듣기 좋아요?” 그가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거 제 본명인데 글자 하나 안 틀리네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 사부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은 인연이 있군요!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둘은 모두 하하 크게 웃었습니다.

이날 오전, 저는 총 16명을 권해 탈퇴시켰는데 평소보다 7, 8명을 더 탈퇴시켰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누구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생일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맞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제자의 매번 제고(提高)에는 모두 사부님의 노고와 심혈이 스며 있습니다. 제자의 매 한 걸음 성장도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매 시각 제 곁에 계십니다. 비록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릅니다. 한번은 아침 6시 30분경, 저는 삼퇴 명단을 인터넷에 발표하려고 수련생 집에 급히 가려 했습니다. 시간을 맞추느라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주의하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하필 변기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고 아무것도 모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깨어났는데, 땀이 많이 나서 옷이 다 젖어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넘어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방에 저 혼자 있었기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빨리 오셔서 저를 구해주세요! 사부님 빨리 오셔서 저를 구해주세요!” 점차 제 손발을 쓸 수 있게 됐고 머리도 아프지 않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관리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른 사부님 법상(法像) 앞으로 가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보통의 80대 노인이 이렇게 한번 넘어졌다면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삼퇴 명단을 집어 들고 빠르게 수련생 집으로 갔는데, 수련생은 막 출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 이때가 바로 7시 30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넘어져서 혼절하고 깨어나 사부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수련생 집에 도착하기까지, 겨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니 정말 불가사의했습니다! 이 과정을 말한 후, 수련생과 저는 모두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더욱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막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단지 병을 없애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구한 것이라 위사위아(爲私爲我, 사심이 있고 나를 위함)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에 따라 저는 점차 알게 됐는데, 대법제자의 사명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助師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며, 무사무아(無私無我, 사심이 없고 나를 위하지 않음)한 것입니다. 이 ‘위사위아’에서 ‘무사무아’로의 진정한 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칭호에 걸맞고, 비로소 진정으로 파룬따파의 한 입자가 될 수 있으며, 법(法) 속에 녹아들어 세 가지 일을 해야 비로소 법의 힘이 있고 심지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제가 매일 반드시 해야 할 큰일입니다.

한번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나이가 비슷한 퇴직 간부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사고가 민첩하여 마치 고위 관리 같았습니다. 그는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았는데,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80대

나이면 댁에서 만년을 즐기며 자손의 봉양을 받아야 하잖소. 당신은 매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든 줄도 모르고, 또 누가 돈 한 톨 주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남에게 욕을 먹고 경찰에게 잡혀가기도 하니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랄까요?

저는 그에게 사부님의 ‘홍음3’에 있는 시 ‘마음 조용히 바라보면’을 외워주었고, 그중 두 구절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는 것도 없나니 큰 난 닥쳐올 때 그대 남기고자 함이라네”.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법제자가 온갖 고생을 겪고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몇십 년을 하루같이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아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연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게 감사해하지 마세요. 제 사부님께서 대법제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감사하려면 제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다른 수련생과 비교하면 저는 잘한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저 입을 좀 열고 다리품을 좀 팔았을 뿐인데, 평범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제자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저는 아직 격차가 큼니다.

저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적든, 매일 반드시 해야 할 큰일 —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저는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가다

글/ 중국 산시(陝西)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 전체가 침체돼 있습니다. 저는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마지막 정법(正法)의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아, 제가 최근 어떻게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한 심득체험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정념으로 정(情)의 가상을 타파하다

많은 대법제자가 가족 간의 정에 아주 집착합니다. 저는 오히려 가족과 자주 다투면 점차 정을 간파하고 내려놓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자신에게 아주 잘해주고, 무조건 순종하며,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경우, 많은 수련생이 정에 깊이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수련생은 남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방식을 선(善)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가족의 헌신을 언급할 때면 말투와 표정에 감동, 환희, 달콤함 등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런 ‘따스한 고향(溫柔鄉)’이 사람을 정에 빠져 더욱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에서 벗어나 정념으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며칠 전 단체 법공부 때 교류하면서, 많은 수련생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견잡을 수 없이 감정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예전에 가족의 정을 없앤 과정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매우 총애하셨고, 심지어 지나치게 사랑하셔서[溺愛] 대학에 가서도 물도 끓일 줄 몰랐습니다. 세탁이나 요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상을 제 앞까지 차려주셨고, 세수와 발 씻는 물까지 떠다 주시는 등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때로 제가 공주병이 도져 짜증을 내도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여겨 감동하곤 했습니다. 수련하면서 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꾸 얹매이고 질척거리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전생의 일을 보았습니다. 민국(民國) 시기였는데, 저는 본래 부잣집 아가씨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부잣집의 부인이 있는 도련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도련님이 바로 현세의 아버지입니다. 꿈속의 저는 전생의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도련님 댁 첩으로 들어갔는데, 그 도련님의 부인이 바로 현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후 그녀는 매일 저를 괴롭혔고, 차를 따르고 물을 길게 했으며, 매일 발을 씻겨주게 하는 등 시집살이가 말도 못 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깨어나서야 어머니가 왜 제게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선한 보답이든 악한 보답이든 모든 것은 인과응보일 뿐인데, 제가 정에 이끌려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정념이 나오면서 그 얹히고설킨 정서들이 더는 저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수련생과 공유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잘해주는 건, 아마 당신이 전생에 그에게 그렇게 했기에 그가 이번 생에 갚으러 온 것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이번 생에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정에 마음을 움직이지 마세요.” 듣고 난 수련생은 정신이 번쩍 든다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慈悲(츠뻬이)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

이익심을 철저히 포기한 후의 깨달음

최근 몇 년간, 저는 크고 작은 이익에 관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익심은 마치 무딘 칼 같아서, 내려놓으려 하면 가슴을 한 칼 한 칼 베는 듯했습니다.

한번은 속인과 동업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에 원가와 수익 배분을 합의했지만, 나중에 동업자가 조금씩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수익금을 쥐고 제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심에 이끌려 다 된 밥을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와 실랑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고 다툼은 끊이지 않았으며, 제 상태도 나빠져 쟁투심과 질투심이 전부 튀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게 깊이 숨겨진 집착이 발견되지 않아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이 복잡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분명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득 사부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련인은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말하는데, 당신의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뤄서도

얻지 못한다.”(전법륜)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익을 포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일체를 사부님께 맡긴 뒤 어떻게 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득실을 따지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가벼워졌고, 동업자도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동업자 입장에서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난 것을 보고 제 돈으로 교체하려 했는데, 막 주문하려던 찰나 동업자가 말리며 집주인에게 전화해 교체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隨其自然)’이라는 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익심을 내려놓고 보니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정해진 운수(定數)가 있었습니다. 생활 속의 매일 지출하는 작은 돈조차 정해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쓰지 않아야 할 돈은 쓰려 해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부(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본래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뜻인데 왜 마음에 담아두니까?

사람 구하는 일에서 정념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다

사부님께서는 ‘2004년 뉴욕 국제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바로 그 지역 중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며, 아울러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사람 구하는 길에서 사부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재난이 빈번한 시기에는 사람 구하는 시간이 더욱 긴박합니다. 만약 현지 대법제자가 모두 마지막 시각에 걸어 나와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한다면, 분명 더 좋

은 효과를 거두고 사람 구하는 힘도 더 커질 것입니다.

우려와 두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반드시 법공부를 많이 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대법제자들이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의 별로 정진하지 않는 수련생 몇 명과 거의 매일 단체 법공부와 발정념을 하고 심득을 교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법제자가 되어 이곳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은 모두 성스러운 인연(聖緣)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정진하고 멈추지 않고 수련해 돌아가야 하며, 합심해야만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는(조사정법) 데 더 큰 작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 구하는 일에 주저하는 수련생을 보면, 제가 두려움을 돌파한 과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교류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구할 때는 두려움에 통제돼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심지어 무기력하고 나약해져 평평 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정념이 점차 솟아오르면서, 두려움이 남은 상태에서 사악의 교란을 만나면 분노로 위장해 저항했습니다. 이후 두려움이 점점 작아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 사람 구하는 일을 할 때도 사람의 거리낌이 많이 줄었으며, 사악이 찾아와도 담담하게 진상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번은 불법 감금 중에, 마지막 순간 생사를 내려놓자 정념이 완전히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고 가둘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심경은 신(神)의 상태와 같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저는 풀려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했고, 나약하고 두려움 가득한 속인을 정념정행하는 각자(覺者)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득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상생 상극(相生相剋)의 법리(法理)를 알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을 두렵게 하는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정진요지 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

그것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정념의 상태로, 어떤 사람의 관념도 없고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인간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니, 당신을 두렵게 할 요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생들은 듣고 나서 서서히 고무됐고 정념이 나왔으며, 하나둘 밖으로 나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때 감격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부님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념으로 두려움을 해체하고 사람 구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맺음말

법정인간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사람 구하는 막중한 임무는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 중의 무량하고 무한한 중생의 남고 떠남(거취)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념에 갇혀 수련을 대하거나 오르기 어렵다고 느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정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세상에 내려놓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악한 박해도 연기처럼 사라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생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 위대한 각자(覺者)로 수련 성취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맹세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청년 대법제자로, 한때 종양외과 의사였습니다. 대략 2019년, 상하이에 오래 거주하던 한 동창이 제게 문진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2개월 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대장내시경 결과서를 보니 종양이 장의 절반을 막아 내시경이 지나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대장암이 그렇게까지 자라는 경우가 드문데, 그렇게 크니 초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수술 기회가 있더라도 생존 기간이 겨우 2년 정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지낸 동창이라 그의 생명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종양외과 의사이지만 능력이 부족했고, 그렇게까지 자란 종양에 대해 정말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어 오직 불법(佛法)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잘 알았지만, 어떻게 그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동창은 상하이에 있었고 당시 대학 입시에서 211 대학에 합격해 일과 삶이 모두 순조로웠으며, 한창 의기양양한 29세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을까요?

저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각각 위암과 폐암에 걸렸는데, 자신이 집에서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으로 할아버지·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말로 60세였던 그의 할머니는 90세까지 살았고, 그는 29세에 결장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복과 업력은 누구의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위챗으로

대법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가 저희 지역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가서 그를 돌보고 수술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법의 진실한 상황과 종양 관련 기적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의 아버지 편으로 부쳤습니다.

동창은 상하이에 있으면서 견문도 넓었고 컴퓨터 우회 접속에도 능통해 제 편지를 본 뒤 즉시 ‘전법륜(轉法輪)’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책을 다 읽은 뒤 그가 제게 한 첫마디는 “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아이가 된 느낌이며, 책을 읽고 나니 온몸이 승화된 것 같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의사는 그에게 종양이 자란 위치상 항문을 보존하기 어려워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겨우 29세인데, 수술을 받고 나서 항문이 없어지다니요”라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마 평소 상식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양은 이미 장관의 절반을 막아 중·말기로 보였고, 수술 후 2년을 살 수 있는 것도 행운이며,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 했던 할아버지·할머니께 생명을 바친다는 맹세를 풀어주시길 사부님께 부탁드립니다. 책을 많이 보고, 책에 나온 대로 실천하고, 이전에 저질렀던 나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머릿속에 가능한 불법(佛法)을 많이 채우면 정해진 운명도 조금 바뀔 거야.”

그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대법 책을 읽고 대법 음악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항문은 보존됐습니다. 수술해 보니 뜻밖에도 종양 세포가 점막의 하층만 침범한 대장암 초기였고, 수술 후 곧바로 치유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이 장관

의 절반을 채울 정도였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초기였을까요? 그러나 수술 후 병리 결과는 분명 초기였습니다. 대법은 정말로 신기하고 초범적인 과학이었습니다!

수술 후 제 동창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어 사부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고 대법의 신기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탐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단번에 좋아지기를 바랐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술 후 복강 내 잔존 액체를 배출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했는데, 그 배액관에서 끊임없이 대변 찌꺼기가 흘러나왔고, 의사는 장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추구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매일 대법 책을 읽으면서도 배액관에서 대변이 더 나오는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가 보름이나 이어졌고 배액관에서는 계속 대변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수술 전의 평온한 마음가짐을 잃고 저를 원망하면서 대법 책을 이렇게 오래 봤는데 왜 장이 낫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다면 이치상 몸의 업력이 아주 큰데, 2년 생존을 예상하던 상태에서 수술한 지 보름 만에 운명을 역전시키고 항문까지 보존했어. 이건 이미 엄청난 희망이고 기적이야. 이렇게 무거운 업력을 가졌으면서 책을 읽었다고 단번에 모두 좋아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좀 지나친 탐욕이야. 책은 책대로 보면서 그 안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면 장도 제때에 저절로 나올 것이고,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는 제 말에 따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다음 날 배액관

에서는 더 이상 대변 찌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를 더 관찰한 후에 배액관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일을 통해 저는 모든 사람이 반복적으로 병업 고비를 넘기는 시험을 겪게 되지만, 단번에 좋아지지 않으니 정념을 굳게 유지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얻는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동창의 사례는 제가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할 때도 자주 활용합니다. 많은 사람은 처음 당·단·대 탈퇴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적인 일로 오해해 거부감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주먹을 들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맹세는 자신에게 몹시 해롭습니다. 제 동창도 어린 시절 위암에 걸린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맹세했는데, 할머니는 30년을 더 사셨고, 그는 29살에 결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했던 맹세를 취소해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 누구에게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저는 가명을 이용해 삼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의 엄숙성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삼퇴하는 이유를 훨씬 쉽게 이해합니다.

첫 투고이니 타당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수련의 엄숙함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7·20’ 이전에 법을 얻은 오랜 대법제자다. 최근 가부좌 중에 한 장면을 보았는데, 수련생 B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큰 내리막길을 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후 나는 다른 수련생들에게 이 장면을 이야기하며, B의 최근 수련 상태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B는 어머니(수련생 A)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계속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3가지 일을 늘 잘하셨습니다. 집에서 자료도 만들고, 다른 수련생들이 심성관이나 난(難)을 겪으면 항상 제때 도와주고, 집에서는 자녀와 남편까지 이끌어 함께 수련하게 해서 우리 집을 수련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 있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다른 수련생들에게도 많은 원망을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후 나는 왜 사부님께서 가부좌 중에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았다. 오직 나만이 A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마음과 집착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B와 공유하지 않아 그녀가 의문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했으며, 심지어 다른 수련생들과의 간격까지 만들어 버렸다. 자책과 후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자연스레 A와 함께했던 1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나는 집에서 진상 자료와 기계가 발견돼 억울하게 3년형을 받고, 어느 시의 여자감옥에서 3년을 보내게 됐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공견조(攻堅組)’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이곳은 ‘유다(배

반자)’, 감옥경찰, ‘방교(幫敎, 세뇌를 돕는 협력자)’로 구성된, 대법 제자를 박해하고 ‘전향’시키는 전문 조직이었다. 매일 대법과 사부님을 모독하는 세뇌 영상을 보기 강요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때리고 욕하고 공격했다. ‘전향’을 거부하면 가족 면회권과 구매권이 박탈됐고, 더욱 굳건한 사람은 전기봉으로 고문하거나 작은 감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어느 방교가 나에게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 내가 글자를 모른다고 하자 그녀가 대신 써줄 테니 손도 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두려움과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고, 이후 작업장으로 보내져 중노동을 했다. 그때의 나는 이 일의 엄숙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어차피 내가 직접 쓴 글도 아닌데…’라는 요행심까지 갖고 있었다.

형기 만료 한 달 전, 나는 다시 ‘공견조’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많은 고향 수련생들을 만났고 A도 그중에 있었다. 그녀는 먼저 다가와 자기소개를 하며 나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하루 이틀 뒤, 나는 A가 감옥경찰 사무실에서 대법을 모독하는 CD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방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예요”라고 변명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A와 같은 방을 쓰던 또 다른 수련생(7년형을 받은 젊은 기술자 수련생)도 방교 일을 하다가 결국 사악함에 끌려가 지금까지도 ‘전향’, ‘방교’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은 매우 무겁다.

출소 후, 나는 법공부하고 안으로 찾으며 ‘3서’에 손도장을 찍은 일은 대법의 수련에 어긋난 것이며 반드시 엄정성명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명혜망에 엄정성명을 제출했다.

1년 뒤, A가 출소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상태가 좋아 보였고 계속 대법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방교 일을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는지, 수련생들에게 사과했는지, 엄정성명을 제출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데 누가 모르겠나, A도 당연히 성명을 냈겠지’ 하고 당연히 여겼다.

며칠 뒤 다시 A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밖에서 진상을 알리면 항상 누군가 뒤따라오고, 집 아래에는 감시 카메라도 있어 위험하니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것이 두려움에서 생긴 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왕래를 중단했다.

거의 2년 뒤, 다른 수련생이 나에게 A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줬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다. 아직 나이가 50대밖에 되지 않았고 늘 대법을 실증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후 들은 이야기로는, A의 딸인 B가 어머니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크게 상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생들이 나에게 그녀를 찾아가 교류하라고 했다. 나는 수십 번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매번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수련생들은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했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무슨 그런 큰 능력이 있겠나?’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가부좌 중에 B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제야 깜짝 놀라 과거의 내가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마음과 체면 때문에, 정말 많은 수련생과의 소통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A가 나에게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감옥에서 ‘방교’를 하며 대법제자를 전향시키는 일에 참여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겠는가? 그녀의 딸의 반응만 봐도 A가 이 일을 얼마나 철저히 숨겼는지 알 수 있다. 친딸도 아무것도 모를 정도였으니 다른 수련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밀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한 말이라도 하늘에는 천둥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수련생들에게 자신의 사람 마음과 집착을 드러내고, 즉시 엄정성명을 써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숨기려고, 알고 있는 수련생이 자기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핑계를 댔다니—이 얼마나 큰 집착과 허점인가? 구세력이 이런 약점을 잡아 박해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사부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다. A가 출옥한 뒤 거의 2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바로 수련생에게 스스로를 바로잡을 여지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엄숙한 문제를 A뿐 아니라 나 역시도 제대로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면과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한 번도 A에게 이 일을 직접 묻지 않았다. 만약 그때 정면으로 짚어 주고 일깨워 주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설령 수련생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더라도, 나는 최소한 대법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이고, A의 딸인 B도 이 일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수련과 정진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다른 수련생을 통해 이 일을 글로 정리하여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슷한 일을 겪는 수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와 경계가 되기를 바란다. 수련에는 작은 일이 없다. 매 한 번의 일마다 당신이 근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대법에 대한 바른 믿

음(正信)이 있는지가 시험받는다. 특히 난을 겪는 수련생들, 특히 불법 노동교양·징역 등 억울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련생들과는 더욱 많이 교류해야 한다. 그 시기 자신의 말과 행동 중 대법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반드시 깊이 인식하고 즉시 성명을 써서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수련의 기회를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만들 수 있다.

진상 달력을 만드는 수련생들과 교류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1.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법제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온 사명이 서약을 실현하고 조사정법(助師正法)하며 중생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줄곧 정법의 다른 단계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해체 당(黨)문화》,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한글판: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명혜주간》, ‘평안을 기원합니다(祝你平安)’, ‘진상’, ‘명백’, ‘하늘이 내린 큰 복’, ‘진상 달력’ 등 진상 자료와 진상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량한 세상 사람들이 말법 난세, 정법의 최후의 단계에 시종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상을 명백히 알며 중공 악당의 독소에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세상

사람들이 사존의 정법 진행 과정 중에서 이런 진상 자료를 본 후 줄곧 지속적으로 중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한 독소를 씻어내고, 그들의 선념(善念)을 일깨우며, 정념을 강화해 중공 악당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보아내고,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에 남겨져 대법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진상 달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상 달력은 사람을 구하는 특정한 진상 자료입니다. 명혜망은 매년 다양한 형식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진상 달력을 제작해 내놓는데, 목적 역시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진상 달력 한 권은 12페이지뿐으로 다시 말해 달력의 진상 내용은 12페이지에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용이 매우 풍부하지만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그 안에서 진상 내용이 고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한 독립 가정에는 한 권만 필요합니다(중공을 두려워하거나 중공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은 제외). 그래서 ‘진상 달력’은 사람을 구하는 시효성과 영향력 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상 달력’의 사람 구하는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상 달력’을 많이 만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구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이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달력’의 수량이 해당 도시의 수요를 초과하면 범람하는 상태가 형성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귀하지 않게 보이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사람을 구하는 데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달력을 배포하며 나타난 상황(두 가지 사례 선정)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현급(縣級) 도시로, 도시와 농촌을 합쳐도 그리 넓지 않고 인구도 딱 그만큼입니다.

매년 달력을 만드는 수련생들이 고생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력을 만들 때 밤낮없이 만들기만 하고 일 욕심이 매우 강해 많이 만드는 것을 사람을 많이 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특정한 관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선에서 달력을 배포하는 수련생과 협조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하며, 실제 사람을 구하는 효과에 따라 달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배포하는 수련생이 달력 수요가 과잉이라고 피드백해도 만드는 수련생은 전혀 듣지 않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계속 전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과 동떨어진 채 일선 배포 상황이 어떠한 무작정 자신의 집착심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우리 지역의 새해 탁상달력이 새해가 지나고 두 달 뒤에도 여전히 배포되지 못한 채 일부 수련생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일선 수련생들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파합니다. 대법 자원이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진상 달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달력을 폐품처럼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달력을 찢어버리고 내던지며 대법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는 더더욱 가슴이 무너집니다.

듣자하니 우리 이 작은 도시에서 진상 자료를 만드는 곳이 약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구역은 일찍 만들고 일찍 배포해 이미 진상 달력 제작을 중단했고, 매주 앞서 언급한 소책자와 진상 자료들을 만드는 것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9월 하순부터 대량으로 진상 달력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련생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움직였는데, 전문적으로 시내의 큰 농산물 시장에서 배포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서 배포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리에서 직접 행인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 두 달 간 배포한 결과,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아갔고 기본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법공부 팀에서 법공부를 마친 후 교류할 때 한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 파는 할아버지에게 달력을 주려고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상 달력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매우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 받았는데 볼 시간이 없네요.” 수련생이 “있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라고 하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채소를 팔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또 달력 주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수련생이 “그럼 많이 받은 건 남에게 주세요”라고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그거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련생이 “그럼 집에 놔둔 건 어떻게 하세요?”라고 묻자 그는 “거기 뒀다가 폐지로 팔거나 땔감으로 땀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채소 파는 사람 뒤쪽 구석에 달력 몇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거기 두냐고 묻자 채소 장수는 말했습니다. “우리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 준 건 쓸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쌓아뒀다가 장사 끝나면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다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련생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만드는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구하는 달력을 버리거나 훼손하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치는 것입니까? 게다가 대법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 한 사람이 사람 구하는 달력을 버리고 훼손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대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인

데, 이것은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저 본인도 일선에서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합니다. 달력을 배포할 때 저는 직접 큰길을 걸으며 남북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손에 쥐여 줍니다. 배포 수량의 많고 적음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람 구하는 효과만 봅니다.

오늘 외출했다가 또 몇몇 수련생이 매우 지치고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집에 쌓여 있던 달력을 방금 다 돌렸는데 듣자하니 다음 주에 또 배포해야 할 달력이 여러 상자 있다고 합니다.” 몇몇 수련생은 모두 말했습니다. “언제 다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달력 만드는 수련생에게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수련생들은 말했습니다. “말했죠. 하지만 달력 만드는 수련생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들도 수동적으로 수련생(의 집착)에 협조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으로 효과 없는 사람 구하는 일(달력 배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혜망에 매주 《명혜주간》, ‘평안을 기원합니다’ 등 자료와 소책자가 그렇게 많이 새로 올라오는데 왜 ‘탁상달력’ 대신 배포하면 안 되는가?’

내가 보고 들은 상황을 써낸 목적은 달력 만드는 수련생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사정법에서 대법에 대해 책임지고 중생에 대해 책임지며 공동으로 마지막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희망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를 수련생과 교류하는 것이니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공부 중 법을 얻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글/ 라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70년대생으로 1995년에 대법 수련을 시작했다. 30년 수련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대법의 신기함과 사부님의 위대함을 목격했다. 오늘 나는 수련 중 법공부에 대한 인식을 수련생들과 나누려 한다.

사실 모든 수련생은 한길을 걸어오며 크고 작은 고비와 시련을 겪었다. 각자 생명의 근원, 특징, 업력의 크기 등이 달라 복잡한 수련 상황이 조성됐다. 어떤 수련생은 매우 어렵게 걸어가고 어떤 수련생은 갈수록 평온하고 편안하게 걸어간다. 많은 수련생이 오랫동안 각종 시련 속에 처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많은 수련생이 사악에게 생명을 빼앗겨 큰 손실을 초래했다.

정말 이런 고비와 시련이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넘기 어려운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사부님께서서는 일찍이 설법 중에서 답을 주셨다. “법리는 당신의 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스위스법회 설법) “법은 일체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 법은 일체 사악을 타파할 수 있으며, 법은 일체 거짓말을 타파해 버릴 수 있고, 법은 정념(正念)을 확고히 할 수 있다.”(정진요지2-교란을 배제하자)

위의 몇 단락 설법을 통해 나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법공부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법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며, 법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법을 얻지 못했기에 사악한 생명에게 빈틈을 이용당해 고비와 시련이 커지고 고비를 넘는 난도가 증가한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각한 박해를 당한 수련생 중에는 법공부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 매일 견지하고, 심지어 법공부 양도 많으며 세 가지 일도 빠뜨리지 않아 매우 정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련생이 많다. 그러나 이런 수련생들과 법공부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해 보면, 그들이 비록 법공부 양은 적지 않지만 법공부 상태와 법을 얻는 효과가 좋지 않고 단지 일종의 법공부 형식을 견지하고 있을 뿐, 법공부할 때 완전히 법 속에 녹아들지 못했으며, 법공부할 때 법리가 전개되는 것도 비교적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 해 전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는 법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 이후로 법공부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부님께서 법 중에서 말씀하신 법공부에 관한 각종 설법과 수련생 교류 문장 중 법공부에 대한 심득, 느낌, 체득 등을 모두 주목하고 진지하게 읽었다. 여러 해 법공부와 교류를 거쳐 점차 법공부 문제에 대해 나의 어떤 인식과 심득을 갖게 됐고, 또 법공부 중 오랫동안 수련생들에게 소홀히 여겨졌지만 수련생의 법공부 효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보게 됐다. 이에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부 수련생이 법공부의 양을 매일 법공부를 잘했는지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매일 법공부를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오늘 얼마를 공부해야 하는지 정하고 공부할 때는 시간을 다투어 읽거나 베끼거나 외우며 빨리 오늘 정한 양을 끝내려고 생각할 뿐, 법공부할 때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지, 법 속에 녹아드는지를 중점으로 삼지 않는다. 법공부를 일종의 임무로 여겨 형식에 치우친다. 이런 상태로 법공부를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고 법 속에 녹아들 수 없어 법을 얻는 효과에 심각

하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 해 관찰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법공부를 하는 수련생들은 자주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문제를 만나면 법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정념이 부족하며, 자신의 수련 상태도 좋지 않고, 사람 마음이 많다.

많은 법공부 팀도 이렇게 법공부를 한다. 나는 일부 팀 법공부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법공부 속도가 빨라 끝나고 나면 희미하게 공부한 느낌이고 공부한 내용을 이미 떠올리지 못했다. 다른 수련생들에게 물어보니 같은 느낌을 받았다.

초기 신수련생이 이렇게 법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지만 층차가 끊임없이 제고되면서 수련 표준도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법공부를 하면 고층차의 수련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법공부를 하면서도 수련 상태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수련생도 있다. 이런 수련생들은 자주 하루에 6, 7시간,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법공부를 할 수 있어 대량의 시간을 법공부에 써서 학습 방법이 가져온 부족함을 보충했다. 이것은 사실 ‘노력은 많이 들이고 효과는 적은’ 방법으로 법공부 효율이 낮다.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말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것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법을 얻는 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많은 수련생은 성격이 비교적 급해 무슨 일을 하든 매우 서두른다. 이런 성격은 법공부에도 나타나 법공부를 할 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속도가 너무 빨라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은 법공부할 때 마음을 완전히 고요히 할 수 없고,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매 구절 법의 내포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공부할 때 표면에 떠 있어 한번 스쳐 지나가며 법의 내포를 깊이 깨달을 수 없다. 최종적

으로도 법 속에 녹아들 수 없어 득법 효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에 대해 나는 일부 수련생들과 교류한 적이 있는데 여러 해 형성된 습관이라 그들은 이런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실 ‘급함’도 일종의 집착이다. 이런 수련생들이 법공부에서 만나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이 ‘급함’의 마성을 제거하고 속도를 늦추며 마음을 고요히 해 법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한 노(老) 대법제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법을 매우 숙련되게 외웠지만 오랫동안 심각한 병엽 교란을 받았고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 했다. 교류를 통해 그가 법 외우는 속도가 매우 빨라 완전히 법이 마음에 들어오는 데 전혀 이를 수 없고, 더욱이 법을 외울 때 매 글자가 모두 머리에 나타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염불할 때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염(念)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대뇌의 기타 부분이 모두 염(念)해 마비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며, 일념(一念)이 만념(萬念)을 대체하여, ‘아미타불’의 매 한 글자가 눈앞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전법륜)

돌이켜보면 법공부 속도가 느린 수련생들은 고요히 마음을 다해 법공부를 해 보편적으로 수련 상태가 안정적이며 심각한 박해나 교란을 받는 현상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내가 아는 일부 수련생들은 교류를 거쳐 법공부 속도를 늦춘 후 곧바로 자신의 수련 상태 변화를 느꼈다. 정념이 강해지고 교란이 줄어들어 효과가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다. 수련생들, 특히 시련에 처해 있는 수련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법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련에 처해 있으면 매우 고통스러워 법공부

할 때 쉽게 ‘서둘러 법공부를 하고 빨리 고비를 넘어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이 생겨 자각하지 못한 채 ‘추구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기점이 바르지 않아 역시 법 얻는 효과를 교란해 오히려 시련을 없애고 고비를 넘는 시간을 늦춘다. 교란 중에서 자신의 수련상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수련 상태를 개선한다’는 태도로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수련생의 법공부를 교란하는 비교적 큰 몇 가지 문제다. 물론 수련생들의 법을 얻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기타 일부 문제는 많은 수련생의 교류 문장 중에서도 많이 언급됐기에 여기서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상은 최근 몇 년간 법공부 방면에서의 일부 심득과 얇은 생각이다. 접촉하는 수련생이 제한돼 있고 층차가 제한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전법륜’을 필사하면서 일어난 변화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주변의 수련생들 가운데 일부가 ‘전법륜(轉法輪)’을 필사하고 있어 저도 필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련생에게서 공책과 펜을 구입해 왔으나, 다른 수련생이 필사를 마친 완성품을 보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를 참고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집에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의 저는 겸손하지 못했고, 자만하며 독선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건의를 귀담아듣지 못했습니다.

제1강을 필사한 뒤 ‘300쪽이 넘는 ‘전법륜’을 언제 다 필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으로 큰 공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고생은 아니었지만 한 획 한 획 써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단련해야 했고, 1년 반에 걸쳐서야 전권을 다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쪽이라도 필사하면 마음이 무척 평온해지고 사고도 흐트러지지 않아 그 당시 제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수련생 모두 필사를 마쳤는데 그중 제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B 수련생이 필사한 글씨는 매우 가지런했고, 글씨가 획이 많은 적든 크기가 모두 일정했으며, 송체자(宋體字)였고, 가로는 반듯하고 세로는 곧으며, 빠침과 파임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고 글자가 바르게 칸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필사한 페이지 역시 비교적 깨끗했으나 제1강에서 글자 크기가 균일하지 않았고, 졸릴 때 쓴 글자는 기울거나 뒤틀린 모습도 있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B 수련생의 필사본을 참고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배우며 수련했다라면 저 자신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사는 반드시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야 하며, 글자의 구조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획 하나하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필사를 막 마쳤을 때 저는 곧바로 두 번째 필사를 하고 싶어졌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법륜’은 보서(寶書)이니 우리는 마땅히 경건하고 공경하고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필사해야 합니다. 명혜망 교류 문장을

들으니 어떤 수련생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필사했으며, 한 글자를 틀리면 다시 필사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직 수련생만큼 법에 대한 엄숙한 태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도 더 진지하게 법 필사를 대할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엄숙하게 대해야 하는데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면 효과도 다르며, 한 번 필사를 끝내면 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필사는 읽는 것보다 훨씬 느린데 우리의 눈, 손, 마음이 책의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이해가 깊어집니다. 법을 필사한 후 다시 법공부를 하면 마음에 잘 들어오고 갈등에 부딪힐 때 마땅히 안으로 찾고 자기 마음속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짓말탐지기를 한 그루 식물에 연결한 다음, 그는 생각했다. ‘어떤 실험을 할까? 내가 불로 그것의 잎을 태워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아직 불을 붙이기도 전에 그 전자펜은 곧 급속히 곡선 하나를 그려냈는데, 바로 사람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나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곡선이었다. 이런 초감각 공능을 과거에는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했으며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 본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는 모두 퇴화되고 있어, 당신 역시 새롭게 수련해서 반본귀진하여 당신의 선천적 본성으로 되돌아가야만, 당신은 비로소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선한 마음을 품으면 상대는 알게 되고, 누구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도 그는 역시 알게 된다.’ 식물조차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뿌리에 물을 주면 그것은 기뻐하고, 밟아버리면 두려워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이미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사일념(一思一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법(正法)을 수련하고 선을 닦는

사람들이기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이 있어야 자비가 나오며, 진정한 선은 어떠한 선결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남편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커가며 결혼을 해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의 단점만 가득 보였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으며, 말은 날카롭고 비아냥거렸으며, 성격은 강압적으로 변해 여성스러움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통 여성의 ‘남편을 돕고 자녀를 가르치며 온화하고 현숙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대할 때 이성적이지 못했고, 법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일의 옳고 그름에만 집착하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제 집착은 사악한 요소에게 틈을 내주었고, 늘 잘 닦고 싶으면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형성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식 사고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가라앉혀 법공부를 많이 하고 명혜라디오 교류를 들으며 안으로 자신을 찾고 수련하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려 애썼고, 이미 지난 일은 모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남편이 몇 년 동안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닦으며 잘난 체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며 이익 문제에 매달리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도 그를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오랫동안 당문화가 주입해 온 투쟁 철학에서 형성된 변이된 가짜 자아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전통적인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며, 일이 생기면 늘 자신을 보호하고 남과 대립하려는 생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심지어 말로 다른 사람을 몰아세워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게 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제가 대법을 얻기 전에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저를 바꾸었고, 당문화식 사고를 제거해 줬으며, 당문화의 독소를 씻어주고, 수구(修口)를 해 진실하고 선량하며 관대하고 자신 있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법을 필사한 뒤 사부님께서는 제게서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없애 주셨고, 몸은 가벼워지고 생각도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단련해 조급함을 닦아 없애고 인내심을 길러냈습니다.

법을 필사한 이후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수련을 꽤 잘하고 있고 깨달음도 높다고 여겼으나 필사를 거치고 나니 제가 바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반에서 뒤쳐진 사람, 깨달음이 조금 떨어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의 내포가 더욱 깊음을 느끼고, 배울수록 법이 박대정심(博大精深)하고 오묘함이 무궁함을 느낍니다. 법을 필사하면서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법신(法身)께서는 늘 곁에서 제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부님과 법을 믿고 자기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필사를 통해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더욱 정진해 법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사부님께서 내려 주신 능력으로 중생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우주의 대법을 전해주시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호탕한 은혜는 천 마디 만 마디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저는 이 법의 웅대한 힘을 몸소 체험했지만 수련의 길에서 때때로 한 발은 문 안에, 한 발은 문 밖에 걸친 상태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부님의 당부를 늘 기억하고 언제나 안으로 찾을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법공부를 하고 자신을 잘 수련하며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겠습니다.

안으로 찾은 후 반신불수 가상이 몇 분 만에 사라져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공 악당의 26년 광적인 박해 속에서 저는 세 차례 억울하게 불법 판결을 받아 11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목(天目)을 완전히 닫고 수련했기에 초기에는 사부님과 법을 100% 믿지 못했고,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일이 생기면 안으로 찾지 않고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고비를 넘기려 했습니다(사실 심성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사부님의 보호하에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 불법 감금당했을 때, 저는 법공부할 때 단지 기억나는 정진요지(精進要旨)와 홍음(洪吟) 중의 법만 외웠고, 매일 전 법륜(轉法輪)의 각 소제목 내용을 한 강의씩 회상하려 노력했으며, 동시에 다른 두 가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상을 알리며 연공환경을 점차 개창했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사악한 박해 속에서 검은 소굴을 빨리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 사악에게 허점을 잡혔고, 본심을 어기고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

를 쓰고 감형받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박해 때 남의 부추김을 받아 사오(邪悟)했고 명혜망을 의심했는데, 돌아온 후 대량으로 법공부 하여 사부님의 보호 아래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사부님의 광대하고 넓은 은혜에 정말 끝없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인 이번에 저는 또 몇 차례 비교적 큰 병업 고비 가상(假相)을 겪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반신불수 가상이었습니다. 속인처럼 ‘병이 오면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병이 가면 실을 뽑는 것 같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빨리 왔다가 빨리 갔습니다.

그것은 2020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검은 소굴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해 작업장에서 재봉틀을 돌려 옷을 만들 때였습니다. 줄을 서서 막 작업장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끝이 들리지 않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감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체중 일부를 지탱할 수 있어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끌며 걸었고, 팔도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대열과 거리가 벌어지자 몇몇 죄수가 제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작업장에 들어가 발정념을 했습니다. ‘나는 리홍쑤(李洪志) 사부님의 제자다.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사부님께 드렸으니 나는 오직 사부님의 관리만 받는다. 너희 사악의 박해를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악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대법제자는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 잡는 사명이 있으니, 누가 박해하면 그가 죄를 지은 것이며 반드시 갚아야 한다.’ 사실 이틀 전에도 가벼운 증상이 있었는데 단지 발정념만 하고 안으로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며칠 전 감옥에서 확고한 대법제자를 전향하려고 각지에서 ‘유다’(배신자)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전향 도구로 쓰는 책을 가져왔는데, 저자는 걸만 알고 속은

모르는 채 현묘하고 또 현묘하게 부풀려 쓴 것이었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그런 것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오행과 질병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사오한 자들이 가져왔지만 그들이 인쇄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부님께서도 오행 학설은 맞다고 하셨다.’ 저는 수련 전에 음양오행과 팔괘를 연구한 적이 있어 심심풀이로 소일하는 것은 괜찮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기에 공(功) 안에 무언가를 넣을 생각도 없었고 제 수련을 지도할 수도 없었으며 단지 심심풀이였습니다. 제 증상과 맞춰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련하지 않았다면 장차 반신불수가 되기 쉬웠겠다.’ 아마 바로 이 일념이 사악한 박해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정념 할 때 이 일념을 더했습니다. ‘너희 사악은 이것을 빌미로 나를 박해하지 마라. 나는 내 공에 이것을 넣을 생각이 없으므로 불이법문(不二法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악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사부님께서 그것을 제거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왼쪽 엄지손가락이 약간 저린 느낌만 남겨 지금까지 저에게 이번 교훈을 명심하도록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제자가 또 사부님께 폐를 끼쳤고, 사부님께서 제자 대신 얼마나 감당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수련하지 않았다면 그해 그 순간 나는 그 병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28년이나 수련했다. 나의 인생길은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신(神)으로 향하는 길이다.’ 비바람 겪는 수련 중에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한 적도 있고, 유랑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인쇄, 인터넷, 편집을 배워 나중에 자료점을 세우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습니다. 2015년 장쩌민 고소 때 제가 먼저 우편을 보낸 후 수련생과 협력

해 현지 모든 수련생의 고소장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 없게 되자 무선 랜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최고검찰원에 직접 발송했고, 외지 수련생이 발송하는 것도 도왔으며 명혜망에 등록 양식도 작성했습니다. 출력하고 발송한 모든 수련생 중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8년 수련 동안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도 오늘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자가 다시 한번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사부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자는 결코 해이해지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수련의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걸어, 사전(史前)의 서약을 실현하고 저의 세계 중생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1998년 이전에 제가 한 형님 A에게 대법을 알렸는데, 그가 전법륜을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을 나는 다 믿네. 책에서 말하는 발치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봤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어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경과는 이렇습니다. A 형님은 꽤 똑똑해서 당시 시중에 다기능 채칼이 없을 때 직접 함석으로 만들어 각지에 좌판을 벌여 팔러 다녔습니다. 한번은 A가 치치하얼 룡사공원 앞에서 좌판을 벌였는데, 옆에 이 뽑는 좌판을 벌인 사람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약병과 뽑은 이 무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뽑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두 사람은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A에게 이 노란 물약이 ‘이골상(離骨霜)’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뽑을 때 썩은 이에 노란 물약 기운을 몇 번 들이마시기만 하면 이와 잇몸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A에게 약 조제법도 알려줬고, A는 제게 이야기할 때 저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부님께서 전

법륜에서 말씀하신 사례가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글의 제목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글을 쓸 때 생각났으니 적어봅니다. 아마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 관한 문제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오늘날 사회에서 남녀가 결혼해 부부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정부기관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혼 역시 이혼증을 처리한 후에야 부부 관계가 정리된다. 만약 이혼 수속을 밟지 않고 별거만 한다면 여전히 부부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다. 남녀가 결혼증을 받지 않고 같이 거주하며 부부처럼 생활한다면 불법 동거에 속한다.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남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사통(私通)하는 것으로, 정인군자(正人君子)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오늘날 중공 악당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도덕은 이미 극도로 부패해 흑백이 전도됐고, 좋지 않고 사악한 일을 도리어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영광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남녀 사이의 혼인 문제에 관해 수련인은 매우 엄숙해야 한다. 잘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성가신 일이나 심지어 아주 큰 난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교훈 1. A 수련생은 예전에 색욕 문제로 넘어진 적이 있었다. 나중에 A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B 수련생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 A와 B가 동거했고, 그 후 A는 병업으로 세상을 떠났다.

교훈 2. C 수련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돼 독거했다. C는 진상을 알리다 사악의 박해를 받아 형을 선고받았다. C는 출소 후 한 남자와 동거했고, 그 후 C는 병업으로 세상을 떠났다.

교훈 3. D 수련생은 오랫동안 타지를 떠돌았는데, 함께 협력하던 여자 수련생과 남녀 관계가 발생했고, 이후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또 남녀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해 강제노동,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신체에 뇌졸중, 심근경색, 편마비 등 각종 병업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수련인이 일단 남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세력은 꼭 잡고 놓아주지 않기에 반드시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 세상 흐름에 휩쓸려 자신의 앞길과 서약을 망쳐서는 안 된다.

손으로 쓴 대련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에 대한 제안

— 대련 10폭 첨부 —

글/ 선과(善果)

[명혜망] 눈 깜짝할 사이 벌써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진상 달력, 진상 호신부(護身符), 진상 대련(對聯, 대구로 된 좋은 글귀)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련 종이를 장식해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법제자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때로는 자신과 인연 있는 중생에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는

화제로 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옛 전통에 따르면 설날 대련은 모두 손으로 썼습니다. 장터에서 서예 선생에게 써 달라고 해도 좋고 집에서 스스로 써도 됐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었습니다.

대련 종이 역시 대부분 단색이었고 붓 하나, 먹 하나, 종이 하나면 족했으며 부귀한 집안만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현대인은 종이에 지나치게 많은 장식을 더해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 많은 주의력이 종이 장식에 쏠리게 되는데, 정작 대련의 창작과 서사, 걸기야말로 가장 핵심이자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련을 쓰고 걸어두는 것은 중국인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본 활동입니다. 대법제자가 붓으로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모두 에너지를 지닙니다. 글씨를 쓸 수 있는 수련생이 세인들을 위해 대련을 써준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자기 집이 있는 경우 집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바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제자의 창작과 서예를 작게나마 홍보하는 셈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래 몇 폭을 초안으로 적어봤습니다. 그중에는 직접 창작한 것도 있고 전통문화, 《고문관지(古文觀止)》와 강희(康熙) 황제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참고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며 벽돌을 던져 옥을 얻고자 합니다.

(1)

除夕紙炮崩舊歲	섣달그믐 폭죽 소리에 묵은해 가고
過年鍾聲鑄新年	새해 종소리에 새해 밝아오네
快找真相	어서 진상 찾으세

(2)

春回大地聞真相
福臨萬家尋蓮花
明白是福

봄이 대지에 돌아오니 진상을 듣고
복이 만 가정에 임하니 연꽃을 찾아 나서네
명백히 아는 것이 곧 복이라네

(3)

明智明理守護善念
慧心慧語慈愛人間

지혜와 이치로 선한 뜻을 지키고
슬기롭고 자비로운 말로 인간 세상에 사랑을
베푸네

網得有緣

인연 있는 이를 널리 구하리라

(4)

說真話善待眾生
做好事只爲良知
積善之家

진실한 말로 중생을 선하게 대하고
양심으로 착한 일을 행하면
선을 쌓는 집안이 되리라

(5)

山不在高有仙則名
水不在深有龍則靈
福田在心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있으면 명산이요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있으면 영험하네
복의 밭은 바로 마음속에 있느니라

(6)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馬到成功

작은 선이라도 행함을 멈추지 말고
작은 악이라도 행함을 허락하지 말라
말 달리듯 성공이 찾아오리라

(7)

一拳之石取其堅	작은 돌에서 굳셈을 배우고
一勺之水取其淨	작은 물에서 맑음을 배우며
以小見大	작은 것 속에서 큰 뜻을 본다

(8)

人生一善念, 善雖未為而吉神已隨之 사람이 한번 선한 마음을 품
 으면 아직 행하지 않았어도 길신(吉神)이 이미 따르고

人生一惡念, 惡雖未為而凶神已隨之 사람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
 으면 아직 행하지 않았어도 흉신(凶神)이 이미 따른다네

不欺暗室 어두운 방에 홀로 있을 때도 결코 자신을 속이지 말라

(9)

無事如有事	일 없을 때는 일이 있는 것처럼
有事如無事	일 있을 때는 일이 없는 것처럼
正心誠意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히 하라

(10)

明明白白看是非	분명하게 시비를 살펴보고
真真切切辨善惡	진정하게 선악을 분별하세
三退是福	삼퇴는 복이라네

번체자와 간체자에 대해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체자·번체자 모두 큰 문제가 아닌바, 간체자를 배워도 되고, 번체자를 배워도 되며,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

체자를 배우는 사람은 번체를 알아볼 수 있고, 번체자를 배우는 사람도 간체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은 장래에 논할 일로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바로 중생을 구도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주 많은 중문 간체자는 중공사당이 만들어낸 것으로, 내포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 십몇억 인구가 모두 간체자를 쓰고 있으니, 이 일은 장래에 다시 보자.”(각지 설법9-2009년 대 뉴욕국제법회 설법)

그러므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대련을 쓸 때 번체자를 써서 사람들이 글자를 보고 뜻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며,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 잘 드러내고 어찌면 이 화제로 진상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전역에서 파룬따파를 알리는 활동이 이어지며, 여러 정부 기관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1월 12일, 약 40여 명의 공공질서국 관료와 직원들이 단체 연공에 참여했다. 카리문군 공공질서국장 테자리아 박사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소개반을 열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사총무처장 마리니는 이렇게 말했다. “꾸준히 연공하면 점점 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상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96만 0039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